

BUYSEMI 제공

(<http://www.buysemi.co.kr>)

각종 웨이퍼 에서 반도체 단위공정서비스 전문 업체

담당자 : 김 원일

(Tel : 02-471-2588 , Fax : 02-471-2589 , 010-9173-7016)

글로벌파운드리가 IBM의 반도체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IBM은 반도체사업부를 매각해 적자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 벌링톤저널 등 외신들은 IBM과 글로벌파운드리가 IBM 반도체 사업부 인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글로벌파운드리는 IBM 반도체 사업 인력과 지적재산을 얻을 수 있어 인수를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파운드리는 이미 뉴욕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IBM 반도체 공장인수보다 인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IBM은 8분기 연속 매출 적자를 피하기 위해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익이 안 나는 사업분야를 매각해 최대한 적자를 줄인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IBM의 장악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IBM의 1000억 달러(약 101조8100억원) 규모 연매출에서도 반도체 비중은 2%에 못 미친다.
블룸버그통신은 “IBM의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의 레벨이나 매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IBM 반도체는 PC와 게임기기 등 전자제품에 쓰인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인수 후에도 IBM과 계속 반도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파운드리는 IBM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IBM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분야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조안나 이토우 세미코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도 반도체 칩이 많이 쓰여 반도체 분야 수요는 아주 많다”고 말했다.

IBM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레노보와 IBM의 x86 서버 사업부를 230억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SSD관련 기업 속속 인수...낸드플래시 SW역량 강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올해 114억달러 규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 SK하이닉스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 인사를 속속 영입한 데 이어 지난달 미국 바이올린메모리의 PCIe 카드 사업부문을 인수해 이달 들어 벨라루스 소재 소프텍의 펌웨어 사업부 인수 등 SSD 사업 진출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SD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저장장치로 기존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대체하면서 올해 114억달러, 3년 후에는 200억달러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연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D램 메모리 분야 강점을 발판으로 낸드플래시 하드웨어 생산 경쟁력에 컨트롤러와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더해 수익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낸드플래시가 주요 부품인 SSD에서는 낸드플래시를 조종해 저장장치로서 기능하게 하는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부족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SK하이닉스 행보는 낸드플래시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모바일기기와 클라우드 확산, 빅데이터에 따른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단순 낸드플래시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더한 SSD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SK하이닉스를 자극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전량 자체 컨트롤러를 탑재한 20나노 낸드플래시 기반 SSD로 PC 제조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컨트롤러도 개발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인증 단계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SSD의 경우 하반기부터 비즈니스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SSD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2012년 9월 경기도 분당에 설립한 `플래시 솔루션 디자인 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KAIST 내에 `스토리지 미디어 솔루션스 센터`를 추가 설립해 연구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인수한 대만 컨트롤러 전문 업체 이노스터의 eMMC(embedded Multi Media Card) 컨트롤러 사업부문도 최근 `SK하이닉스 플래시 솔루션스 타이완`으로 전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의 스토리지 컨트롤러 분야 최고 기술업체인 LAMD 인수를 통해서도 고부가가치 낸드플래시 솔루션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세계 SSD 시장 점유율



"마이크론, 올해 연간 D램 매출액 100억달러 돌파 예상"

엘피다를 삼킨 마이크론이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D램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리며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장조사업체 IHS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엘피다 인수를 완료한 마이크론은 2013년 1분기 약 10억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D램 매출액이 올 1분기에는 27억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다만 마이크론과 엘피다의 D램 생산량을 합친 수치로 계산하면 전년 동기(마이크론+엘피다)와 비교해 30%의 성장률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마이크론 연간 D램 매출액이 1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93억달러를 기록했던 연간 D램 매출액이 올해 1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26억78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93억7800만달러, 마이크론이 75억7800만달러로 뒤따르고 있다.

마이크론의 경우 엘피다 인수 효과가 본격화된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당 26~27억달러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D램 시장 2위를 지켜온 SK하이닉스와 대등한 수준의 매출액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D램이 52% 급등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도 빅3 중에서 유일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의 경우 시장 전역에 걸쳐 PC D램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하이닉스가 PC D램 비중을 높인 것이 실적 상승의 공신이었다.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추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20나노 중반대 공정인 2y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공정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이서플라이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전체 D램 공정에서 20나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마이크론(60%)에 비해 29%포인트 높은 수치다.

마이크론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0나노대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3개 업체 중 가장 미세공정 기술력이 뒤쳐져 있다.

올 1분기 역시 20나노 후반대 공정인 2x 비중이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가 중소·중견기업에 반도체 분야 미활용 우수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술 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기술은행 도입을 위한 기술 나눔 업무 협약식'의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대기업의 국내외 우수 미활용 기술 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 사업화 정보망(NTB)를 통해 수요기업을 발굴했다.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SK하이닉스가 총 240건(국내 213, 해외 27) 기술을 산업부에 위탁했으며, 위탁받은 기술 중 총 41건(국내 36, 해외 5)의 기술이 15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됐다.

양도된 기술은 반도체 장비와 소자 등 반도체 분야의 우수 패밀리 특허(국내를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로 산업부는 사업화 추진의지와 특허활용계획을 선별해 기업을 선정했다.

이 특허는 앞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직접 활용된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부(총괄기관), KIAT(운영기관), SK하이닉스(기술 이전기관)는 지속적인 협력관계 증진과 제도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또 SK하이닉스는 15개 중소·중견기업 대표에게 특허 무상 양도증을 수여했다.

함께 열린 '기술 나눔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실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기술 나눔을 통해 대기업의 미활용 우수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 하는 모범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형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준 이에스컨트롤스 대표는 “기술나눔을 통해 제품기술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대기업 전체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활용 우수 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술을 양도받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화를 위해 추가 기술 상용화, 특허분쟁 대응 등 관련 사업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업화 전담은행이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공공연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특허를 아이디어·노하우까지 확대해 기술은행을 통해 기술 풀(Pool)을 구축하고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 나눔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하소연

조성호 비제이닉스 사장이 사비 20억원을 들여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시스템 ‘사이드 패드’를 개발해 국내 특허를 받은 것은 지난 2010년이였다.

사이드 패드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로 후방을 비추고 이를 차량 내부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당시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은 개발에 나선 상태였다. 사이드 패드가 곧바로 상용화로 이어지면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조 사장의 꿈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선 자동차에 거울로 된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모든 자동차는 ‘후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후사경(後寫鏡)은 뒤를 비추는 거울, 즉 사이드 미러(룸 미러 포함)를 뜻한다.

문제는 차량의 뒤를 비추는 장치를 ‘거울(鏡)’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사이드 미러 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 사장이 개발한 사이드 패드와 같이 사이드 미러를 아예 없애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공기저항이 줄어드는 데다 사각지대가 사라져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도요타, 혼다, 테슬라, 현대·기아차, 아우디, 닛산 등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같은 자동차를 모터쇼에 선보인 바 있다.

폴크스바겐은 사이드 미러 없는 차 ‘XL1’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에는 사이드 미러에 반드시 거울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미국에선 이 같은 조항이 있지만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도 규제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토부 자동차운행과 관계자는 “관련 국제기준이 바뀌면 국내 규제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후사경을 당장 없애면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사장은 “사이드 미러로 반드시 거울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특허 획득 후에도 판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선제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력관리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10곳 중 9곳이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존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3년 내 직장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력난 해소가 중국내 기업경영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북경지부가 주중 한국기업 278개사와 중국인 구직자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률이 30%이상인 기업이 5곳 중 1곳,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인력관리에 있어 주중 한국기업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직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높은 임금 인상률이 꼽혔다. 응답기업의 40.6%(복수응답)가 가장 큰 애로로 직원들의 빈번한 이동을 언급했고 임금인상 과다(33.5%), 책임자 인재수급 불균형(29.1%), 고된 일을 기피하는 성향(19.1%)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금수준 증가도 지속적으로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10%대 초반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9%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이라는 기업도 7.9%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임금인상률이 50%를 상회한 기업의 비율은 27.0%에 도달했다.

구직자들이 한국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기업에 지원이유로 응답자의 92.0%(중복응답)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기업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66.2%), 야근도 많기 때문(64.8%)이라고 답했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인력부족이 중국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재채용 및 관리를 질적으로 전환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원활한 고위직 승진과 연수(교육) 확대, 한국으로의 파견 근무 및 한국인 직업과의 협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실적 부진 등 돌파구 필요

김기남 삼성전자 부품(DS)부문 반도체총괄 겸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이 시스템반도체 실적 부진과 경쟁사 추격이라는 이중고에 어깨가 무겁다.

메모리사업부장을 맡던 김 사장이 지난 1일부터 새로 맡게 된 시스템LSI사업부는 지난해부터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스템LSI사업부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에서 대만 미디어텍에 추월당하는데다 대만 TSMC에도 맹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 아이폰6에 탑재할 A8 AP의 주 공급처 자리를 TSMC에 내어줬다.

삼성전자의 AP를 주 공급처로 삼던 애플은 TSMC, 글로벌파운드리에도 생산을 맡기는 등 공급처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TSMC는 애플과의 계약을 따기 위해 16나노 3D 핀펫 공정 도입을 서두르는 등 AP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성장 시키자 애플은 차기 스마트폰인 아이폰6의 AP 생산을 TSMC에 상당량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삼성전자의 AP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이 2012년 11.1%에서 지난해 7.9%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 1분기 4.8%까지 내려앉았다고 집계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DS부문 임직원들에게 올 2분기 경영현황 설명 메시지를 보내 시스템LSI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생산을 맡으며 성장한 삼성전자의 시스템LSI사업부는 2012년에는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승승장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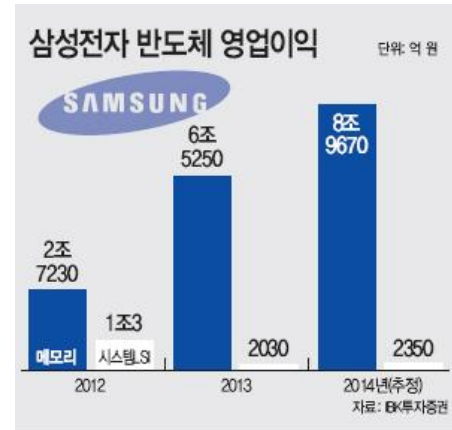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AP 시장은 삼성전자가 집중해온 단일칩이 아닌 AP와 통신칩을 결합한 퀄컴의 통합칩으로 판도가 기울자 삼성전자의 입지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시스템LSI사업부는 메모리사업의 고속성장에 가려졌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2030억원 정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스템LSI사업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온 김 사장이 사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1981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김 사장은 반도체연구소 D램 팀장,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이미지센서(CIS) 개발 담당 임원, D램 개발실장, 반도체 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메모리부문에 주력했던 김 사장은 시스템 반도체부문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업 전략 등을 재편해 반도체사 업의 경영 전반을 챙길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자율 출퇴근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자율 출퇴근제는 주당 40시간만 채우면 하루에 4시간 근무도 가능한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수원 DMC연구소와 화성 반도체연구소 등 연구개발 직군 내의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했던 자율출퇴근제를 다음달부터는 전체 연구개발 및 디자인 직군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0만여명 중 4만명 이상이 시행 대상이다.

자율 출퇴근제는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되 하루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기존의 자율출근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으로 ‘스마트 워크’ 차원에서 도입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규정대로라면 오전 8시 출근했다가 낮12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업무 관리는 더욱 엄격히 해 업무중 누수되는 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단한 티 타임도 업무 시간에서 빼는 식이다.

하지만 자율 출퇴근제가 얼마나 잘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993년 삼성전자는 7·4제(7시 출근·4시 퇴근)를 실시했다.
차가 막히지 않을 때 일찍 출근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자기 계발을 하라는 취지로 도입했다.
문제는 일찍 출근해도 퇴근은 상사 눈치를 보느라 기존처럼 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폐지됐다.
2002년부터 8·5제(8시 출근·5시 퇴근)으로 바뀌었고, 2009년에는 자율 출근제를 도입했다.

대만 PC 전문업체 에이서가 국내에 저가 3G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회사는 향후 LTE, 고해상도 스마트폰 등 고급형 제품도 연이어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에이서는 12일 출고가 25만9천600원의 'Z150 - 리퀴드 Z5(Liquid Z5)' 스마트폰을 KT를 통해 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올해 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13개국에서 출시된 바 있는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젤리빈(4.2.2) 운영체제 기반의 3G 전용 스마트폰이다.

16:9 비율의 5인치 LCD 대화면과 5개의 렌즈로 더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후면의 5백만 화소 카메라(F 2.4)로 오토 포커스, 파노라마, 연속 촬영, 오토 스마일 샷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텍의 듀얼코어 MT6572프로세서(1.3 GHz), 1GB 메모리를 탑재했으며 최대 4.15시간 통화, 최대 620시간의 대기가 가능한 배터리(2000mAh) 용량을 제공한다.



Liquid | Z150

4GB 저장장치(SD카드로 추가 확장 가능)에 에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사진이나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무게는 147g으로 가벼우면서 두께는 8.8mm으로 줄여 날씬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DTS의 다이내믹 사운드로 동영상 및 음악 감상에도 탁월하다.

후면의 퀵버튼(Acer RAPID™)으로 손가락을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사진 촬영, 빠른 애플리케이션 실행 및 간편한 전화 수신이 가능하다. 더불어 편리한 수신 팝업창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에도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

파워 세이빙 모드, 태스크 클리너, 플로팅 앱, 에이서 퀵 모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다.

'에이서 Z150 - 리퀴드 Z5'는 올레샵 및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 강남 올레에비뉴, 홍대역 지정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출고가는 25만9천600원이며, 통신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최저 요금제로 개통해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개통할 수 있다.

통신 요금이 부담스러운 학생,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부모님,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찾는 고객, 기업 법인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S는 에이서 공식 서비스 센터 외 전국 13개 지점의 올레AS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출시를 기념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8GB SD 메모리 와 액정보호필름 등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된다.

에이서 동북아시아 총괄 밥 센(Bob Sen) 사장은 "에이서는 노트북을 시작으로 데스크톱, 태블릿, 프로젝터까지 다양한 IT 기기를 국내에 출시해 왔고 이번에 KT를 통해 최초로 스마트폰을 선보이게 됐다"며 "LTE 스마트폰, 고해상도 스마트폰 등 고급형 제품도 연이어 국내에 선보여 에이서의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미래형 융합 서비스를 출시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타 제조 분야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공동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를 실현하는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도요타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운전자가 도착 전 파나소닉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양사 제품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신규 협력 서비스는 각사의 스마트홈 사업이 결합된 형태다.
도요타는 ‘도요타 스마트 센터’를 중심으로 사람과 자동차, 집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자동차 생활로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파나소닉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A Better Life, A Better World)’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 가전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TV부터 비디오,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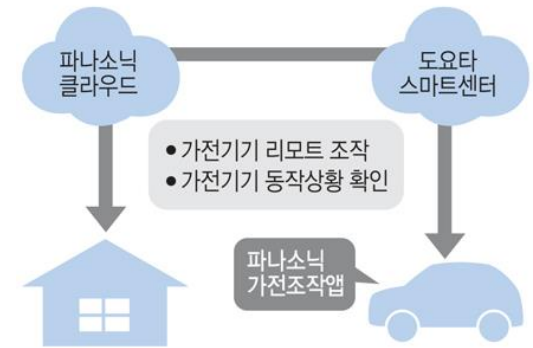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자동차와 가전을 잇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후 양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왔다.

새 서비스는 자동차 위치 정보와 집안 가전제품의 정보를 연동해 외출 시 에어컨 등 가전기기를 끄지 않았을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 귀가 전 에어컨 등 작동을 권하는 등의 기능도 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공동 개발한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스마트 커뮤니티 재팬 2014’에 설치되는 도요타 부스에서 공개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홈 기기 업체 네스트를 인수했고 애플은 최근 스마트홈 플랫폼 ‘홈킷’을 공개한 바 있다.
집안 에어컨이나 조명 등을 네트워크와 연결해 스마트기기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각 분야 업체들의 사물인터넷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도요타·파나소닉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개념도



삼성전자가 대표적 특허괴물(NPE)인 인터디지탈(InterDigital)과 손을 잡았다. 갈수록 높아가는 NPE 특허소송 위협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체 소송에서 NPE가 차지하는 비중은 72.3%에 달했다.

최근 3년(2011~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이 81.1%로 더 높아진다. 수년간 삼성을 괴롭힌 특허전쟁의 주 상대가 NPE였다는 의미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총 249건의 특허소송을 당했고 이 중 180건이 NPE로부터 피소였다”며 “인터디지탈은 삼성의 제소가 활발한 통신 부문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NPE로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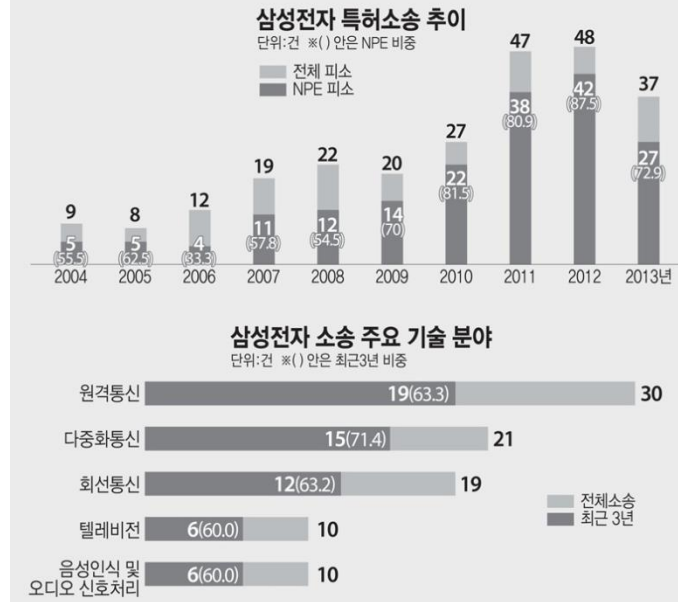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삼성전자 제소에 가장 많이 쓰인 특허는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 · 19건)과 다중화통신(Multiplex Communications · 15건) 부문이다. 이 두 기술은 전체 소송의 60% 이상이 최근 3년에 몰려 있어 소송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처럼 소송 리스크가 높은 원격통신과 다중화통신 부문에서 인터디지탈은 각각 371건 · 438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NPE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 보유량이다. 인터디지탈은 특허 보유에 그치지 않고 각각 5건 이상의 특허소송을 직접 전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터디지탈이 공격적 NPE로 꼽히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탈과의 제휴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탈과의 특허사용 계약 체결로 NPE발 소송 리스크를 줄였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겨냥한 NPE의 새로운 위협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인터디지탈과 함께 가장 위협적인 NPE로 꼽히는 록스타컨소시엄(Rockstar Consortium)은 통신 특허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이미 삼성을 수차례 제소했던 대만계 ITRI(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특허소송 전문 NPE인 워커디지탈(Walker Digital)과 GBT(Golden Bridge Technology) 등도 특허 확보에 적극적이다.

강 대표는 “삼성이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분야는 다른 경쟁사나 NPE와의 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 NPE 위협 뿐 아니라 신기술 관련 특허를 한두 개 매입해 곧바로 소송에 나서는 소형 NPE가 늘고 있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인터디지탈의 동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비정질실리콘(a-Si)과 저온폴리실리콘(LTPS) 틈에 끼여 자리를 잡지 못했던 산화물(옥사이드) 기판이 저전력의 장점 덕분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춤했던 설비 투자도 중국을 시작으로 재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조만간 옥사이드 설비 투자가 추가 단행될 전망이다.

옥사이드 기판은 수율만 뒷받침되면 LTPS에 비해 마스크 수도 적고 공정도 간단하다.
비정질실리콘 방식 대비 전력 소모량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LTPS보다 생산원가가 낮아 저가의 비정질과 고가의 LTPS 사이 수요를 겨냥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 시장 최고 이슈는 옥사이드 기판이었다.
대면적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도 옥사이드 기판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LTPS 과잉 설비 투자로 가격이 하락하고 AM OLED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옥사이드 기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듯 했다.
LG디스플레이가 소형 옥사이드 LCD 패널을 지난 해 양산했지만 중국 일부 업체에 공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 옥사이드 기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중국에서는 생산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CEC판다는 일본 샤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8.5세대 라인을 구축 중이다.
투입 원판 기준 월 6만장 규모로 이 라인이 가동하면 옥사이드 기판 전용으로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E도 허페이에 월 1만장 규모의 옥사이드 기판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CSOT도 연구개발(R&D)용으로 옥사이드 설비를 투자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AM OLED TV용으로 옥사이드 기판을 채택했다.

AM OLED TV 양산용인 M2 라인이 본격 가동하면 추가 설비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설비 한두 대씩 늘리는 식으로 소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다.
애플이 옥사이드 기판에 대해 여전히 애정을 보이는 것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아이폰은 고해상도를 위해 LTPS LCD를 유지하지만 저전력이 절실한 태블릿PC와 노트북PC에서는 옥사이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저전력에 대한 세트업체 요구가 높다는 게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사이드·a-Si·LTPS 비교

구분	옥사이드	a-Si	LTPS
재료	인듐(I), 갈륨(Ga), 아연(Zn), 산소(O) 등의 화합물	실리콘(Si)	실리콘(Si)
전자이동도	10cm ² /Vs 이상	0.5cm ² /Vs 이상	100cm ² /Vs 이상
리크전류	10E-16A/μm 이하	10E-13A/μm 이하	10E-12A/μm 이하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투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흥플러스, BGF리테일, LF(舊LG패션), STX중공업 등이었다. 흥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은 최우수를 받았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이 포함됐으며, 양호 등급에는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만도, 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등이 들어 있다.

지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으로 구성됐던 평가 등급을 이번부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바꿨다. 기존 개선 등급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동반위 관계자는 "등급이 발표된 100개사는 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더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1차 협력사 8곳은 시범 체감도조사 대상으로 이번 등급 공표에서는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체감도 조사의 거래관계 항목에서 공정거래 부분은 전년보다 향상돼 우수한 수준(평균 94.8점)이었고, 거래조건은 양호한 수준(81.3점)이었으나, 원가 상승 요인 의 납품단가 반영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71.4점)를 받았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협력분야 점수도 전년 47.6점에서 52.6점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외 판로지원 및 경영관리 지원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반위는 지적했다.

동반성장 운영체계는 아직 노력이 필요한 수준(74.4점)이었으나, 환경조성 부문(금품요구, 상호존중)은 우수한 수준(87.9점)이었다고 동반위는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 협약이행 수준도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더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 81개사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도 협력사 등록 및 취소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유통분야 16개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판촉행사와 매입가격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행정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께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게는 동반위 및 공정위의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장에서 국산 배터리가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이어 ESS · UPS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까지 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B3는 보고서에서 LG화학과 삼성SDI의 올해 ESS · UPS용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각각 22%, 20%로 전망했다.

올해 ESS · UPS용 배터리 시장 규모(용량 기준)는 690MWh로 23만가구(4인 기준)가 하루 동안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2010년(28MWh)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5배가량 성장했다.

B3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90MWh 중 290MWh가 국산 리튬이온 이차전지로 채워질 전망이다. 금액 기준으로 4200억원 규모다.

이에 LG화학과 삼성SDI의 매출도 ESS · UPS 분야에서만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차전지 종주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산 배터리와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ESS 활용이 전력 수요관리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연동, 전력 주파수조정(FR)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산 배터리의 안정적인 기술완성도와 생산능력,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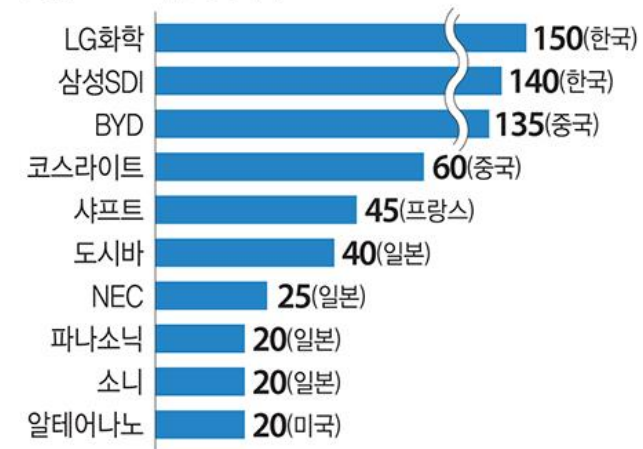
국산 배터리가 ESS · UPS를 포함해 중대형 이차전지로 분류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과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삼성SDI 역시 점유율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형전지에 이어 중대형 전지시장까지 국내 기업의 독주가 예상된다.

배터리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 분야에서도 국산 배터리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ESS용에 최적화된 고안전성, 장수명 배터리 개발 등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선두권 자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별 ESS 시장 점유율
단위:MWh ※ ()안은 국가



북미, 서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2014년 하반기 기준 10%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IT지식포털(IT Find)의 ‘ICT Spot Issue’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조사한 결과 ZTE,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선진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이 2012년 1분기 기준 3.5%에서 2013년 4분기 기준 9%로 상승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유통 매장 확대 등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업체들이 선진 시장에 출하한 스마트폰은 2012년 1분기 기준 200만대에서 2013년 4분기 기준 700만대로 약 2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분기 기준 미국에서의 출하 대수는 300만대로 전 분기 대비 39.4%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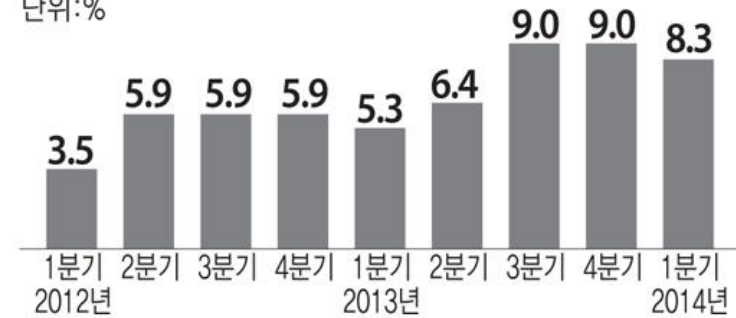
이는 성장을 측면에서 같은 기간 애플(3.0%), 삼성전자(7.7%) 등 기존 글로벌 업체를 크게 압도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 업체가 낮은 브랜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선불사업자와의 우호적 관계 △월마트 등 소매 유통채널 확대 노력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결과로 분석했다.

향후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버라이즌, AT&T 등 메이저 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함과 동시에 중저가 스마트폰 구매를 늘리는 전략으로 중국 업체들의 선전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 또한 초기 모방 제품을 통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에서 프리미엄급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라인업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서유럽시장 中 스마트폰업체 점유율 추이
단위: %



LG ‘대형’ 내세워 공격 경영 삼성 “대중화 열었다” 관망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 올레드)’ 패널을 놓고 LG와 삼성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LG는 대형, 삼성은 중소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 TV 사업에서 LG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써,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

패널이 얇으면서도 화질이 뛰어나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 ‘미래의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는 지난 1분기 글로벌 TV시장의 기술별 점유율에서 액정표시장치가 95.3%로 압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는 0.1%에 불과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LG전자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5인치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출시하고 제품군을 확대해왔다.

10일에는 65·77인치 초고화질(UHD)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이르면 3분기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사업장의 유기발광다이오드 TV 패널 전용 생산라인(M2)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중국 업체 스카이워스나 콩카에도 이 패널을 공급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에서는 G플렉스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서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대형 패널 사업에 아직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6월 곡면 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내놓은 게 유일하다.

대신 스마트폰 갤럭시S5나 웨어러블기기 기어핏과 같은 소형 화면에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사업장에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전용 생산라인(A3)을 만들어 내년쯤 양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같은 소재를 바라보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시장 형성 시점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LG는 2~3년 내에, 삼성은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LG는 2000년대 들어 TV가 브라운관(CRT)에서 액정표시장치로 재편될 때도 초기 투자를 많이 한 덕분에 일본 업체들보다 앞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쪽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이 중요한데 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이런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기술 대결의 측면도 있다. LG는 기존의 삼색 방식(RGB · 적색, 청색, 녹색 유기물을 유리기판에 증착하는 방법)에 흰색을 더한 WRGB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삼색 방식보다 색 표현 범위가 넓고 대형 패널 양산에 유리하다. 반면 삼성은 RGB 방식을 유지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LG가 WRGB 방식을 선점하고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방식 변경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시장성이 있는지를 본 뒤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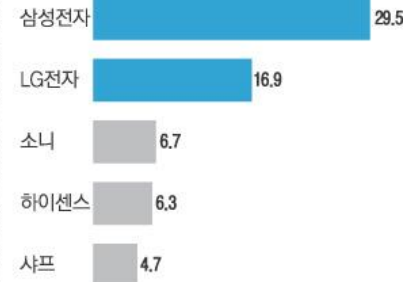
결국 삼성도 언젠가는 유기발광다이오드 TV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규모 추이



2014년 1분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출처: 디스플레이서치, 단위: %



한화가 태양광사업 경영 혁신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또 영입했다.
수직계열화 달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제조부문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해석된다.

한화그룹은 최진석 전 STX솔라(현 E&R솔라) 사장을 지난달 28일 제조혁신 담당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2011년 말 STX솔라 CEO로 부임한 뒤 지난 2월 퇴사했다.

최 사장은 태양광, 반도체 분야 제조공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1년까지 17년간 근무했으며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그룹기술대상을 수상했다.
2001년 하이닉스로 옮긴 뒤 2010년 하이닉스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재직 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율을 크게 높여 반도체 제조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STX솔라에서는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사이버펍’을 개념을 도입해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조라인을 운영했다.
추가공정 최소화, 기존 장비 활용으로 효율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다.

한화는 최 사장이 공정개선·투자비용 최소화를 통해 업계 최저 수준의 제조원가를 실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 사장은 한화에 합류한 뒤 지난주 한화큐셀 독일 공장을 방문했으며 말레이시아 생산 공장 답사를 위해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한화 태양광 사업이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제조라인 효율 향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며 “큰 투자 없이 제조라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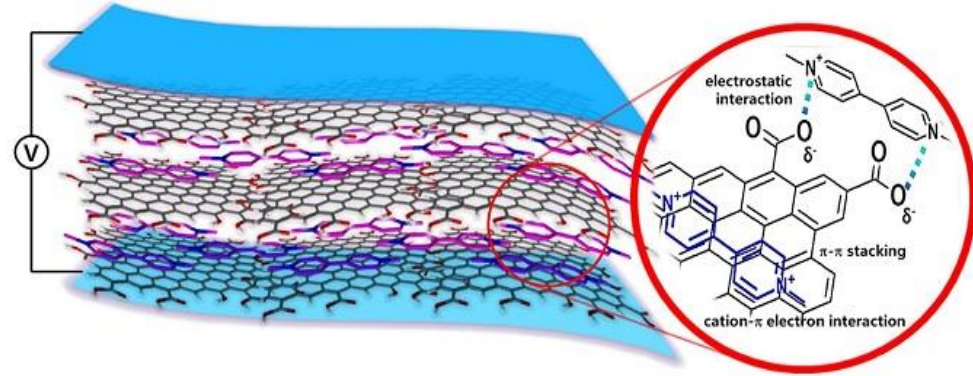
한화가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것은 최근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달 1일 한화솔라원은 지난달 1일자로 남성우 전 삼성전자 IT솔루션 부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중국 등 글로벌 태양광 기업과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야 상황”이라며 “제조 부문 경영혁신을 이끌어온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성균관대 교수팀, 전해질 없이도 안정적인 전기변색소자 개발

변색거울이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전기변색소자를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효영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팀은 그래핀 양자점을 활용해 전해질 없이도 안정적인 전기변색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변색소자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 색깔이 변하는 전기변색 물질을 이용하는 소자를 말한다.

건물 유리나 자동차 룸미러의 광투과도, 반사도 등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적외선 차단효과까지 알려지면서 쓰임새가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소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 시 변색을 돕는 전해질을 첨가해야 한다는 점. 이 경우 비용이 추가되고 과정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전기변색 물질의 일종인 비올로겐에 그래핀 양자점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전기변색성을 띠는 새로운 복합재료를 개발했다. 그래핀 양자점은 그래핀으로 이뤄진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반도체 결정으로, 독성이 적고 생산비용이 저렴해 반도체나 발광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비올로겐과 그래핀 양자점 사이에 강한 정전기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해질 없이도 산화-환원 반응이 수행돼 전기변색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 전달을 매개하던 전해질의 역할을 양자점이 대신함으로써 소자의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80도 이상의 고온이나 휘어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종 변색거울과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을 저렴하고 손쉽게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중국산 저가 칩 공급으로 수익 '뚝'

발광다이오드(LED) 업계가 이른바 '10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산 저가 LED 칩 공급으로 LED 패키지 가격이 개당 100원 이하로 가격이 곤두박질친 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3분기 연속 10원씩 떨어졌다. 가격 폭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국내외 LED 칩·패키지·조명 업체들은 잇따라 사업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LED 업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치킨 게임'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지금까지 조명용 LED 패키지 가격이 개당 분기마다 10원씩 큰 폭으로 떨어졌다.

조명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180lm/W급 미들파워 5630(5.6×3mm 크기) LED 패키지 마저도 지난해 4분기 80원대에서 올해 1분기 70원대, 최근 50~60원대로 각각 추락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150원 이상을 유지했다.

LED 칩 가격 폭락 수준은 더 심각하다. 4020(4×2mm 크기) 칩은 일진LED 등 대다수 업체 제품이 평균 30원대에서 최근 20원대로 낮아졌다. 지난 2012년에는 50원대 수준으로 공급됐다.

가격 폭락의 주범은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다.

이들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양산에 나서면서 LED 칩·패키지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최대 LED 칩·패키징 업체인 사난(Sanan)의 LED 칩은 올해 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사난 2310(23×1mm) LED 칩은 지난해 7원에서 최근 6원으로 하락했다.

근래 LED 업계는 “고가의 유기금속화합물증착(MOCVD) 장비를 운영하며 LED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LED 사업성이 악화되는 데다 조명 시장 개화 시점도 불투명해지자 최근 관련 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사업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 NEC·파나소닉 등 일본 LED 조명업체들도 사업 정리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ED 업체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사업 재정비에 나서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호전기는 지난해 계열사 더리즈와 함께 LED 에피·칩 생산설비 일체를 일진LED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이 회사는 신규 사업으로 터치스크린패널(TSP266)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일본 LED사업을 정리했던 삼성전자도 최근 관련 사업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중국 사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합작회사를 통해 사난의 저출력 LED 칩을 공급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는 이와 관련, “국내 업체들은 범용 LED 칩 생산에 주력하기보다 특수 LED 조명이나 플립칩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전환해 중국 업체들과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을 앞두고는 기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TI “현대차 등 스마트카 고성장” ...전담 개발팀 운영
프리스케일 등 친환경 신기술 앞세워 국내공략 박차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6위 수준까지 성장했음에도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는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시스템온칩(SoC) ‘자신토 6 에코’(Jacinto 6 Eco)와 무선 커넥티비티 디바이스인 ‘위링크 8Q’(WiLink 8Q) 등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상균 TI코리아 이사는 "2년 전 쉐보레 전 대표가 취임한 후 전사적인 방향을 현대·기아자동차라는 큰 브랜드가 있는 한국에 집중해야겠다고 해서 오토모티브팀을 만들었다"며 "30년 동안 축적한 오토모티브 경험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스마트카 관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만 16~17명의 전담팀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는 또 "현대차는 더이상 페스트 팔로워가 아니다"며 한국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TI는 지난해 전체 반도체 매출 중 13%를 오토모티브 제품으로 벌어들이는 등 자동차용 반도체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중이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TI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약 5%로 보쉬와 비슷한 수준이다.

TI 뿐 아니라 인텔, 퀄컴, 프리스케일, 로움, 리니어 등이 국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인포테인먼트와 차량 안전제어 시스템, 전력제어장치 등 진출 분야도 다양하다.

이같은 배경에는 자동차의 스마트·친환경화에 따른 반도체의 사용 증가가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은 매년 7.4% 가량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 2012년 1900억달러에서 오는 2017년 2740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에서는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금액이 2002년 200달러에서 2012년 330달러로 늘었고, 오는 2020년까지 약 1억5200만대의 차량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등 차량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크리스 웨버 SA 부사장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연구개발로 인해 고성능 프로세서·메모리·신호IC(집적회로)·카메라·센서 장치 등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과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콘텐츠 연동 및 자동차 무선연결(AP)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에 성장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의 움직임은 아직 미진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009년 자동차용 반도체 공동개발에 나선 바 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려면 반도체설계업체(팹리스)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별 점유율 (단위%)



(자료:SA)

세계 스마트카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자료: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아산사업장 내 플렉시블 전용 A3라인 장비 발주...AP시스템 SFA 케이씨텍 로체 등 수혜

삼성이 새롭게 건설한 6세대(혹은 6.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비투자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비투자로 이근희 회장의 건강 문제로 차세대 OLED 투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됐다. 삼성 OLED장비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2년여 만에 이뤄지는 OLED 신설투자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들어 충남 아산사업장 안에 건설한 신규 OLED 공장(A3라인)에 쓰일 장비를 발주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올 하반기부터 A3라인에 쓰일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후 내년 2분기부터 양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연초 열린 한 행사에서 "(A3라인을) 상반기 중 투자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킨 셈이다.

삼성이 이번에 투자하는 A3라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00mm와 1800mm 길이인 기판을 다루는 6세대로 알려졌다. 6.5세대로도 불리는 A3라인은 현재 가동 중인 A2라인 기판보다 면적이 38% 정도 크다. 이는 6세대 공장에서 OLED를 생산할 경우에 이론적으로 5.5세대보다 동일한 시간에 제품을 38%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삼성이 6세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A3라인은 기판이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 공정으로 투자된다. 플렉서블 공정은 기판을 기존 유리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휘어지고 쉽게 깨지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다만 A3라인 초기 투자 규모는 당초 월 3만장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월 1만5000장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에 쓰이는 금액도 2조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이 차세대 OLED 투자에 나서면서 에스에프에이, AP시스템, 원익IPS,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로체시스템즈, 케이씨텍, 디엠에스(DMS), 아이씨디, 참엔지니어링, 케이맥, 에스엔유 프리시전 등 수혜가 점쳐진다.

AP시스템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598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AP시스템은 기판을 결정화하는 레이저결정화장비(레이저어닐링) 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에프에이는 공장 안에서 OLED 기판을 이송하고 분류, 저장하는 공정자동화장비(FA장비) 일체를 수주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 로체시스템즈는 레이저로 기판을 분할하는 레이저절단장비(레이저 글라스커팅시스템) 수주가 유력하다.

참엔지니어링은 기판 위에 불필요한 회로를 끊어주거나 필요한 회로를 연결해주는 레이저리페어(레이저 수리장비)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케이씨텍과 디엠에스는 세정장비와 현상장비 등 공정장비 공급이 점쳐진다.

원익IPS와 아이씨디(ICD)는 기판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건식식각장비(드라이에처) 공급이 예상된다. 테라세미콘과 비아트론은 열로 기판을 안정화하는 열처리장비(퍼니스)를 수주하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 케이맥(측정장비), HB테크놀러지(검사장비), 에스티아이(중앙약품공급장치) 등도 수혜가 점쳐진다. 에스엔유프리시전은 기판에 수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씌워주는 봉지증착장비(인캡슐레이션) 수주가 예상된다.

외환은행은 가맹점 단말기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IC 단말기 전환에 발맞추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내장된 IC칩을 카드 사용자가 직접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CGD(Chip Guard Display)카드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CGD카드는 공카드 자재에 키패드, 디스플레이패널(e-paper),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어 IC 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시 고객이 직접 카드 자재에 설정한 보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IC칩이 활성화돼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카드를 말한다.

또 CGD카드에 탑재된 키패드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포인트 잔액, 사용 가능 한도 등 고객의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의 1등급 보안수단인 OTP(One Time Password)와 결합하여 1장의 카드로 은행 인터넷 뱅킹 거래와 신용카드 거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카드이다.

외환은행 카드영업지원실 관계자는 이날 “CGD카드의 IC칩 보호기능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카드에 내장된 IC칩이 작동을 하지 않아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CGD카드의 OTP 기능을 활용하면 인터넷 거래에 보안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거래 보호에 최적화된 카드이다”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를 위해 마스터카드, (주)스마트크리에이티브와 CGD카드 자재 기반의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CGD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카드 신상품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이 대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공정 장비인 산화물(Oxide) TFT용 6세대급 장비인 이그조(IGZO) M0-CVD와 게이트 절연막(Gate Insulator)공정에 사용될 신개념 M0-CVD를 함께 출하했다고 9일 밝혔다.

Oxide M0-CVD는 초고선명(UHD), 투명, 플렉시블 및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대응에 최적화된 세계 최초·최고의 장비로, 기존 물리기상증착(PVD) 방식 대비 이동도(Mobility)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전력소모량 또한 20%이상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성의 디스플레이 사업 차세대 혁신제품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공급되는 게이트 절연막 M0-CVD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SiO₂ 물질을 대체함으로써 TFT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열(Thermal) 증착 보다 뛰어난 막질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게이트 절연막 공정 외 에치스탑 레이어(Etch Stop Layer: ESL) 및 패시베이션(Passivation), 베리어(Barrier)막 공정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현재 주성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서 Oxide TFT IGZO M0-CVD 장비와 함께 OLED기판을 수분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캡슐레이션(봉지증착)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성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했던 이번 제품의 출하를 시작으로 매출 부분에서도 큰 폭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해 차세대 전략 제품들의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기업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4년여 만에 깨진 보유 지분 ‘54%대 46%’
어그러진 2013년 경영목표 매출 1000억

LS산전의 ‘야심작’ 지능형 전력 반도체 모듈 업체 LS파워세미텍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당초 장밋빛 전망도 빛이 바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구상했던 경영 전략에 메스를 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위해 LS산전은 LS파워세미텍의 경영권을 외국계 합작사에게 넘겼다.

◇경영권 獨 인피니언으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S산전은 지난 3일 자회사 LS파워세미텍 지분 20%(161만주)를 2대주주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ion Technology AG)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LS파워세미텍 최대주주인 LS산전의 지분은 33.6%로 감소하고, 인피니언은 64.4%로 늘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LS파워세미텍은 LS산전이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1위의 독일 전력용 반도체 모듈 업체 인피니언과 합작으로 2009년 11월 설립한 회사다. 초기 자본금은 400억원 가량으로 각각 210억원, 190억원을 출자, 지금까지 54%, 46%의 지분을 유지해왔다. LS산전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LS파워세미텍의 경영권도 인피니언으로 넘어간다. 현재 LS파워세미텍의 이사진은 5명으로 윤흥구 대표를 비롯해 LS산전 3명, 인피니언 2명으로 짜여져 있고, 감사는 1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피니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잔여지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매출, 목표의 절반

LS파워세미텍이 생산하는 제품은 지능형 전력 반도체 모듈로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모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전력 사용량을 30~40% 줄이는 역할을 하는 가전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LS산전은 LS파워세미텍 창립 당시 경영 목표를 2013년 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LS파워세미텍 설립 당시만 해도 이 부품은 국내 가전업체들이 전량 일본 등 해외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특히 구자균 당시 LS산전 사장(현 부회장)이 합작 계약 체결 때 “지능형 전력용 반도체 모듈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입해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수입 대체 효과 측면에서도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LS파워세미텍의 경영 실적은 당초 목표와는 많이 어그러진 상태다. 2010년부터 양산에 들어간 LS파워세미텍은 지난해 4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3년 목표치 1000억원의 절반도 안될 만큼 더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순이익은 2012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가 돼서야 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20억원에 순이익은 1억원이 채 안된다. 이로 인해 여전히 결손금 280억원(2013년 말)이 쌓여있다.

◇ ‘산업용’ 으로 전략 수정

LS산전의 이번 지분 매각은 기존 경영전략의 일대 수정을 의미한다. 가정용에 주력해왔지만 기대에 못미치자 시기를 앞당겨 앞으로는 LS산전이 주력으로 하는 산업용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인피니언이 산업용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만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며 “LS산전 입장에서는 LS 파워세미텍의 최대주주에서 고객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적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S파워세미텍 경영권 양도는 지난 2009년 3월 전력선 통신 업체 플레넷을 시작으로 LS파워세미텍, 중국 호개전기, 트리노테크놀로지 등 중소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거나 설립하며 몸집을 불려왔던 LS산전이 최근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S산전은 2012년 06월 플레넷에서 전력선 통신기술 사업부문만 사들인(10억원) 뒤 인수 당시 39억원을 주고 산 지분 63.1%(633만주)를 주당 1원만 받고 매각했다. 당시 플레넷은 적자 누적으로 완전자본장식 상태였다. 또 올해 2월에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을 진우산전에 매각했다.

30대 그룹의 올해 1분기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9% 늘었다. 그러나 30대 그룹 1분기 투자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을 제외하면 오히려 4% 줄어, 투자에서도 삼성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누리집 시이오(CEO)스코어는 30대 그룹 174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해 1분기 투자액을 집계한 결과 20조51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조8500억원)에 견줘 8.8%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4조6000억원을 투자해 30대 그룹 투자의 24.4%를 차지했던 삼성은 올해 1분기에는 6조8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보다 투자액을 48.4% 늘렸다.

1분기 30대 그룹 투자액 중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나 된다.

30대 그룹 전체의 1분기 투자액은 지난해 1분기에 견줘 1조66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 삼성을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그룹의 올해 1분기 투자액은 13조6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4% 줄어들었다.

삼성그룹의 투자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반도체 설비에 3조3000억원, 디스플레이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6조2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체 투자의 90% 이상을 이끌었다.

에스케이(SK)는 올해 1분기 2조79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보다 47.5% 증가한 수치이고 삼성 다음으로 큰 규모다.

계열사 중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신제품 생산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로 1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엘지(LG)와 현대자동차는 1분기에 각각 2조7000억원과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규모는 컸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투자액이 12%씩 줄었다.

케이티(KT)의 1분기 투자액은 전년 대비 59.5% 늘어난 1조2000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다섯번째였다.

투자 증가율은 현대그룹이 가장 높았다.

현대그룹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1분기 483억원에서 올해 2240억원으로 363% 늘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상선에서 3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을 인수한 금액이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을 포함해 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5대 그룹의 올해 1분기 투자액이 30대 그룹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6.8%포인트 커진 73.4%였다.

기업별로 보면, 174개 상장사 중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린 곳은 83개로 절반(47.7%)이 안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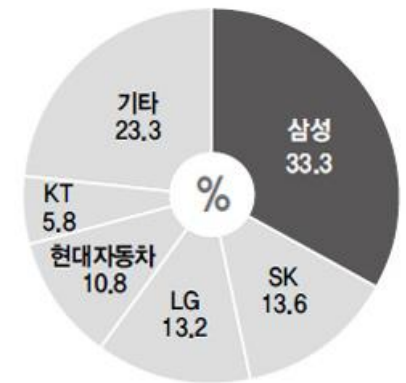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하이닉스(1조3000억원), 케이티(1조1700억원), 포스코(1조1000억원), 현대차(1조3000억원) 차례로 많았다.

30대 그룹 상장사 1분기 투자(상위 7개)

단위: 원, 자료: CEO스코어

순위	그룹명	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1	삼성	6조8325억	48.40%
2	SK	2조7858억	47.50%
3	LG	2조7080억	-12.10%
4	현대자동차	2조2079억	-12.60%
5	KT	1조1961억	59.50%
6	포스코	1조1850억	-47.50%
7	롯데	5292억	15.50%

1분기 투자액중 주요 그룹상장사 비중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067310)은 9일 계열사 HT마이크론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주(州) 상레오폴도 시(市)에서 브라질 최초의 반도체 패키지 전용공장 준공기념식을 진행하고 브라질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밝혔다.

준공 기념식에는 지우마 호세피 브라질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브라질에 건설된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이다.

HT마이크론 본공장 준공기념식에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비롯해 따르소 젠호 리오그란데도술 주지사, 아니발 다 시우바 상레오폴도 시장, 마르셀로 아귀노 유니시노스 대학 총장 등 브라질 측 관계인사와 구본우 주브라질 대사, 최창호 하나마이크론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 및 가동을 축하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 축하에서 “HT마이크론이 브라질의 하이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모델을 보여 주고 있고 이를 계기로 브라질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창호 하나마이크론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우마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 브라질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HT 마이크론은 수년 내에 브라질과 중남미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이자 브라질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될 것” 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HT마이크론은 현재 생산중인 메모리 패키징 제품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임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eMMC), 저전력 모바일 램(LPDDR), 임베디드멀티칩패키지(eMCP) 제품으로 생산을 확대해 올해 1억달러, 2017년에 1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HT마이크론 관계자는 “반도체 패키징 전용 공장 준공에 따라 브라질 현지 컴퓨터 업체에 메모리모듈을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IT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고부가 가치 제품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며 “올해 안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에 따른 브라질 내 IT기기 수요 급증과 하이테크 제품의 자국 생산 장려로 HT마이크론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품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 고 강조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 등 개인용컴퓨터(PC)의 시대가 저물고 모바일 컴퓨터 격인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D램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쓰이는 모바일 D램 비중이 석달여만에 PC용 D램 비중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 D램익스체인지가 9일 밝힌 2기가비트(Gb) 기준으로 환산한 전 세계 D램 출하량은 올 1분기 52억9500만개로 지난해 1분기(41억1600만개)보다 29%나 증가했다.

급증의 주역은 모바일 D램이다.

1년전보다 50%나 늘어난 17억8800만개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작년동기대비 10% 늘어난 16억5000만개를 출하한 PC용 D램은 31%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에도 역전현상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다시 석달여 만에 역전이 재현되면서 올 해는 연간기준으로 첫 역전이 확인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실제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연간 D램 비중은 36%로 높아지는 대신 PC용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D램 시장에서 PC가 20여년 간 독점해온 주도권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에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PC용 D램 비중은 2010년 62%에 달했으나 2011년 53%, 2012년 44%로 낮아지다 지난해 33%로 떨어졌다.

반면 모바일 D램 비중은 2010년 11%, 2011년 15%, 2011년 22%, 지난해 32%로 상승했다.

D램 시장은 1980년대 초반 PC 산업과 함께 태동해 줄곧 같이 성장해왔다.

1980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D램 시장은 정점을 기록한 2010년 400억 달러로 20년 새 40배로 커졌다.

하지만 PC는 2009년부터 보급이 본격화된 스마트폰에 자리를 내주고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업체들도 늘어나는 모바일 D램 수요에 대응하느라 PC용 D램 생산라인을 점차 모바일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D램 시장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2010년 PC용 D램 생산 비중이 53%, 모바일 D램은 17%였으나,

지난해는 PC용 22%, 모바일 39%로 역전됐다. SK하이닉스는 PC용과 모바일 D램 생산 비중이 2010년 51%와 11%에서 지난해 36%와 26%로 격차를 좁혔으며 올해는 28%와 34%로 뒤집힐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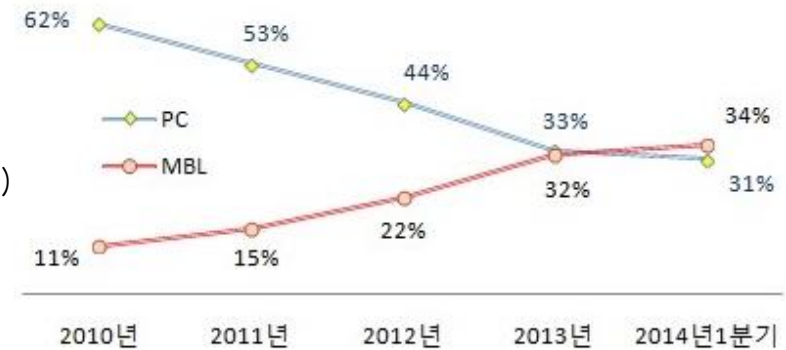
D램 시장이 모바일 D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성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PC용 D램은 PC에 상관없이 호환 가능한 범용 제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급이탄력적이고 조절도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모바일 D램은 모바일기기의 특성상 맞춤 생산 위주여서 제품이 다르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쉽지 않다.

한편 올 1분기 나머지D램 시장은 서버용 D램 9억9200만개(19%), 소비자용 D램 4억7000만개(9%), 그래픽 D램 3억9600만개(7%) 등이다.

D램시장 모바일(MBL)용 및 PC용 비중 추이



(자료:D램 익스체인지)

볼록한 뱃살이 걱정되는 것은 남녀 모두 마찬가지.

평소 식사량을 조절하고 운동도 해보지만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더구나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 옷차림까지 얇아져 뱃살에 대한 고민을 더한다.

최근 미국의 유력 건강지 ‘헬스’ (Health)가 ‘당신 뱃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공개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뱃살 줄이기에 도전해보자.

1.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떨어졌다 =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기 쉽지만 빼기는 어렵다고 느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줄어들기 때문.

2.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 = 평소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으로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을 연소하기 쉬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 원래부터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운동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3.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 흰 쌀밥이나 빵, 크래커 등의 정제된 곡물은 물론 스낵류나 설탕이 든 음료, 디저트 등의 가공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지방 연소를 방해하며 이런 당질이 체내의 지방질과 결합하는 신체의 ‘당화’ 작용으로 살을 빼기 어렵게 만든다.

4.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다 = 육류와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내장지방이 되기 쉬워진다.

대신 올리브오일 등의 불포화지방산, 특히 연어나 호두, 해바라기씨 등에 함유된 오메가3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5.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진다.

내장지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6. 잠이 부족하다 = 수면 부족도 비만의 원인이므로, 가능하면 하루 7시간을 자도록 해야 한다.

7. 병을 앓고 있다 = 식사에 신경 쓰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이 발병할 수 있으며 당뇨병 전증이나 당뇨병도 살을 빼기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